

News & Issue

뉴스와 쟁점

콜롬비아에 찾아온 평화: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이 평화협정안에 서명하다¹⁾

지난 8월 24일 콜롬비아 정부와 게릴라단체 무장혁명군(FARC)은 역사적인 최종 평화협정안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반세기 이상 지속된 무장 투쟁에 종지부를 찍기 위하여 거의 4년 동안 계속된 협상이 마무리되고, 그 결과는 10월 2일의 국민투표를 통하여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 평화협정안은 정부 측 협상책임자인 움베르토 델 라 카이예와 무장혁명군의 대표자 이반 마르케스가 서명했으며, 이 자리에는 쿠바의 외무장관 브루노 로드리게스가 참석하였다.

그동안 협상 감독국가 대표로 참여한 로돌포 베니테스(쿠바)와 닥 닐렌데르(노르웨이)는 이 날 최종 합의에 대한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콜롬비아에서 무장 충돌의 영구적인 종식 및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평화의 정착을 선언하였다.

200페이지가 넘는 최종 평화협정안은 “콜롬비아 전 국민이 항구적인 평화 건설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지금까지 되풀이된 폭력의 역사를 마감하고 평화의 기틀을 마련”하였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 문서는 지난 3년 10개월 5일 동안 계속된 협상을 통하여 도달한 6개 항의 주요 합의 사항을 담고 있는데, 이것은 전면적 농지 개혁, 정치 참여 및 민주주의 확대, 쌍방의 무력행위 중단, 게릴라의 무장 해제 및 안전 보장, 불법 마약 문제 해결, 무력 충돌 희생자 보상, 합의 이행과 검증

1) 이 글은 멕시코 일간지 『호르나다』(La Jornada)의 기사(2016년 8월 25일자)를 번역한 것이다.



2016년 6월 23일 쿠바 아바나에서 무력행위 중단과 무장해제 합의문 서명식. 왼쪽부터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후안 마누엘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위원장, 티몰레온 히메네스 무장혁명군(FARC) 지도자 (출처: <http://www.cubadebate.cu>)

에 관한 사항이다.

평화 협정 조인 후 텔 라 카이에는 “우리는 목표를 달성했다”면서 “비록 이것이 완벽한 협정은 아니지만 가능한 최선의 협정”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훌륭한 방식은 평화를 위해서 대화하는 것으로, 전쟁은 끝났으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마르케스는 양측 모두 “가장 아름다운 전투에서 승리했으며, 이것은 콜롬비아의 평화라는 전투”라고 강조하였다. 그는 “평화 협정은 많은 난관과 어려운 과정을 거쳤지만 마음과 마음이 만나 결실을 이룬 것”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다시는 무기의 사용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희망을 피력하였다.

협정 조인 후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은 평화협정안을 10월 2일 국민 투표에 회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산토스 대통령에 따르면 무기를 버린 무장혁명군 대원은 의회에 투표권 없는 대변인을 두게 되며, 이를 통하여 총선을 치르는 2018년까지 합의 이행을 논의하고, 이어지는 두 번의 의회선거에서 최소한의 의원수를 보장받고 선거에 참여하게 된다.

양측의 대화는 지난 2012년 11월 19일 아바나에 협상 본부를 두고 시

작되었으며, 베네수엘라와 칠레가 협상 동반국으로 참여했다. 이번 협상은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에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시도된 네 번째 대화였으며, 지금까지 무력 충돌의 피해자는 공식 집계로 사망 약 30만 명, 실종 4만 5천명 외에 약 7백만 명이 자신의 보금자리를 떠나 타지로 이주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무장혁명군은 1964년부터 활동을 시작하였는데, 2015년 7월 이들이 무력 행동을 중단하고 콜롬비아 정부가 몇 달 후 이들의 활동 지역에 대한 폭격을 중단함으로써 양측의 충돌은 자제되어왔다.

평화협정이 발효되면 양측은 최종적인 무력행위 중단에 돌입하게 된다. 이후 무장혁명군은 대원 전체(콜롬비아 정부 추산 약 7천명)의 명단을 제출하고, 이들은 잠정적으로 23개 지역과 8개의 병영에서 생활하게 되며, 6개월의 기간 내에 무기를 회수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은 정부, 반군, 비무장 유엔감시단의 3자가 공동기구를 구성하여 확인할 것이다. 회수된 무기는 용광로에 녹여 3개의 평화 기념물을 주조할 예정이다.

피해자

무장 충돌의 피해자에 대하여 진실, 정의, 피해 보상을 약속하고 다시는 폭력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이와 관련하여 10인의 외국인 판사를 포함한 총 48인의 판사로 구성되는 특별재판소를 설치하여, 납치, 성폭행, 미성년자 징병 등의 중대 범죄를 저지른 게릴라, 정부군, 민간인을 단죄한다.

자신이 이 같은 유형의 행위에 연루되었음을 고백하는 자는 감옥행을 면제받을 수 있으나, 그러지 않을 경우 8년에서 20년 사이의 징역형에 처한다. 특별재판소에서는 징역형 대신 받게 될 처벌과 보상 수위를 결정하는데, 무장혁명군이 보유한 재산으로 보상을 실시할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장혁명군 대원은 사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마약

이번 합의에는 무장혁명군의 영향권에 있던 지역에서 마약 재배를 대



무장게릴라 대원과 악수하는 산토스 콜롬비아 대통령 (출처: <http://www.ahoranoticias.cl>)

체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포함되었으며, 무장혁명군은 마약 재배 중단을 약속하였다. 정부 당국은 마약과의 전쟁을 계속해 나갈 것이지만, 자발적으로 대체 작물을 찾는 마약 재배 농민에게는 다른 생계 수단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후 마약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공중 보건 문제로 대처할 예정이다.

향후 정치활동

무장혁명군은 추후 정치단체로 탈바꿈하여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지위 및 안전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무장혁명군이 다음 두 번의 의회선거에서 충분한 득표를 얻지 못할 경우 총 268석 가운데 일부 의석을 할당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충돌이 있었던 지역에 특별 규정을 두어 기존 정당 출신이 아닌 후보를 선출하게 함으로써, 민주제도의 외연을 확장한다.

무장혁명군 대원에 대해서는 보복 살해를 당하지 않기 위한 안전 조치를 실행한다. 이를 통하여 1984년의 협상 실패 후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애국 연합의 지도자, 행동대원 및 추종자가 살해당한 전례가 되풀이

도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다.

농촌 지역 지원

역사적으로 무장혁명군은 가난한 농민과 국가 폭력의 희생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투쟁에 정당성을 부여했다. 정부는 폭력의 피해를 입은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더 많은 토지, 금융 혜택과 기초 서비스를 확대해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엄청난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투표

최종 평화협정안은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이며, 통과를 위해서는 최소한 4백 4십만 표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평화협정안이 국민투표를 통과하면 의회는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률과 제반 개혁 작업을 시작하게 되며, 이 과정은 2018년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만일 국민투표에서 반대표가 더 많다면, 평화협정안은 폐기된다.

멕시코 정부는 외무부 성명을 통하여 콜롬비아 정부와 무장혁명군 간의 최종 평화협정안 타결을 축하하였다.

[남영우 옮김]

남영우 —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사